



### 남원 대산면 발전협, 참미 20kg 15포 기탁

남원시 대산면(면장 이동현)은 면 발전협의회(회장 김한수)에서 지난 8일 추석 명절 이웃돕기 사업으로 참미 20kg 15포(환가액 1백만원)를 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해 관내 경로당 5개소와 소외계층 10가구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산면 발전협의회는 해마다 명절이면 성품을 기탁하여 관내 소외계층에게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시에는 수재민을 위한 성금 기탁, 화재 피해가구에도 성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복지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한편 이동현 면장은 "지역의 힘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제시보건소, 코로나 극복 신체활동 꾸러미 제공

김제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과 집단 실내운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이동센터 이용 저학년 학생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자가 신체활동 유도 및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꾸러미를 마련했다. 어르신 신체활동 꾸러미는 스트레칭 밴드, 줄없는 줄넘기, 지압살리퍼 등 7종이며 어린이 신체활동 꾸러미는 발목줄넘기, 스피드킥, 스트레칭 포스터 등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월 한달동안 어르신 가정 및 지역이동센터 방문을 통해 전달 예정이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신체활동 꾸러미가 지역주민의 신체기능 향상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경찰, 복합 음주감지기 활용 음주단속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9일,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성능을 대폭 개선한 신형 음주 복합감지기를 활용해 주·야간을 불문한 본격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개발한 신형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포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

이동민 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저녁모임이 제한되어 낮술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야간을 불문한 강력한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기기증의 고귀한 가치를 군민과”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유공 표창

진안군의회 조준열 의원(가 선거구)은 장기기증 활성화 유공으로 9일(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생명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기증의 인식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준열 의원은 3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 하면서 진안군 보건소장과 진안군 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는 등 자타공인 보건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조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우리나라 장기기증 대기가



가 4만여명에 다다르고 있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연일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며 “이후 장기기증 기증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된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기증의 고귀한 가치를 군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재향군인회, 성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재향군인회가 9일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성금 1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이날 오전 무주군청을 찾은 무주군 재향군인회 김동인 회장은 황인우 무주군수를 예방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더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6백여 재향군인회 무주지역 회원들이 지역발전과 지역 나눔활동을 지속 펼치면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재향군인회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남원시, 주민공동체를 위한 심화교육 진행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지역 공익활동가와 주민공동체를 위한 심화교육 ‘공동체 성장학교’가 9일 남원시장과 각 공동체 리더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다.

총 3차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공동체를 꾸꾸고 설계하다’라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비영리모금 기획 및 실무 전략 ▲비영리모금으로 공간 문화 컨텐츠



로컬 상품 제작을 운영한 남원지역 활동 사례 ▲덕과면 도촌마을 및 솔바람마을 마을활동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2020년부터 주민자치교육 심화단계인 ‘공동체성장학교’를 개설해 주민제안공모사업

의 시민대표와 남원지역 교육공동체, 시민환경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활동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제농협, ‘제1기 다문화 여성대학 수료식’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음)은 8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결혼이민여성 수료생 10명에게 수료장을 전달했다.

이번 다문화여성 대학은 지난 5월12일부터 시작하여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금융교육,현장체험학습,전통



생활음식만들기가족의 다문화 이해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수료생대표 로세미리는 “수업을 통하여 직접 만든 가방과 꽃바구니를 시부모님께 선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며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한국문화를 완벽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남원경찰, 추석명절 전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 점검

남원경찰서는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테러취약시설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 남원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설주 및 종사자들을 상대로, 폭발물테러 발생시 신고요령, 테러 유형별 대응법, 비상연락체계점검 및 방호장비·시설의 적정성 여부 및 취약지역에 대한 보

완을 요구하고 위기상황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동민 서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 정겨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군보건소,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위한 캠페인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9일 이른 아침 시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차를 제공하며 생명존중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일일차집을 운영했다.

이날 일일차집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신건강 캠페인도 병행했으며 오는 14일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자살 예방을 위해 해마다 운영되는 일일차집은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분위기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정천면, ‘농민에게 희망을’ 일손돕기 펼쳐

진안군 상하수도과, 정천면 직원들은 9일 고추 수확 시기를 맞아 정천면의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런 일찍부터 군 상하수도과,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잘 익은 고추를 수확했다.

수확기를 맞은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수확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상 농가는 최근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날 도움을 받은 주민은 “교통신호가 나는 바람에 내 새끼 같은 고추를 아껴하나 줘도 못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